

# 루돌프 오토의 초기 사상에서 바라본 “성스러움” 개념의 발전과 형성에 관한 소고

김태연\*

- I. 들어가며
- II. 초기 루돌프 오토의 삶과 사상(1869-1898)
- III. 초기 오토의 종교적 관심사
- IV. 나가며: 오토의 『성스러움』과 그 역사적 자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스러움’이라는 종교현상학적이며 종교심리학적 개념을 각인시킨 루돌프 오토의 생애 중 1917년 그의 역작 탄생 이전까지에 대한 역사적 윤곽을 그려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특히 그의 신학적이고 종교학적인 사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며 성스러움이라는 개념에 천착하게 된 그의 동기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첫째,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 출판 이전의 초기 신학적, 종교학적 이력에 대해 간단히 살필 것이다. 여기에서는 1917년까지의 모든 이력을 살피지는 않는다. 이 글은 역사적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제 2장에서는 일단 박사학위 논문 이전까지를 살피고, 이후의 전개에 따라 오토의 이력을 중간 중간 삽입하도록 한다. 둘째, 초기 오토의 핵심 관심사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특히 루터와 슐라이어마허에 대한 해석, 새로운 예수상에 대한 그의 관점,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둘러싼 종교경험의 고유성을 오토가

---

\*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조교수

어떻게 접근하였는지를 조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토의 역작인 『성스러움』의 의의에 대해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성찰 및 종교학적이고 신학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 종교적 감정, 종교적 경험, 종교철학, 종교심리학, 종교학과 신학

## I. 들어가며

루돌프 오토(Rudolf Louis Karl Otto, 1869-1937)의 대표작 『성스러움: 신적인 것의 관념 속에서 비합리적인 것과 그것이 합리적인 것과 맺는 관계에 대하여』(*Das Heilige: Über das Irrationale in der Idee des Göttlichen und sein Verhältnis zum Rationalen*)는 1917년 출판되었다. 이 책은 전 세계 약 20여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힌 당대의 종교학 및 신학의 베스트셀러이자, 현재에도 중요한 고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 감리교 신학대학 조직신학자 윤성범(尹聖範)이 세계사상교양전집 총서 시리즈 제 2권에서 오토의 『성스러움』을 “종교입문”이라는 표제 하에 최초로 번역하였다.<sup>1)</sup> 이후 1987년 서강대학 종교학자 김희성은 1923년 런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판된 존 하비(John W. Harvey)의 영역본을 저본으로 하되<sup>2)</sup> 영역본이 독일어판의 제 9판의 번역본인지라, 오토의 개정판이자 『성스러움』의 최종판으로 인

---

1) 칼 야스퍼스, 루돌프 오토, 에밀 브룬너 저, 윤성범 역, 『哲學入門, 宗教入門, 宗教哲學』(서울: 을유문화사, 1963).

2) Rudolf Otto; John W. Harvey (trans.), *The Idea of the Holy: An Inquiry Into the Non-rational Factor in the Idea of the Divine and Its Relation to the Rational* (London: H.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3).

정받는 1963년 제 35판을 중심으로 번역하였다.<sup>3)</sup>

『성스러움』이 출판된 때는 제 1차 세계대전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4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오토는 바로 1917년, 이 책을 출판할 때 충분히 그 시기적인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대 유럽, 특히 독일이라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교가 주요한 종교로 인식되며, 동시에 그 종교로부터 많은 이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던 시기에 종교라는 개념 대신 ‘성스러움’(das Heilig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성스러움’은 자율적이고 선형적인 범주이자, 종교적 의미와 가치의 범주에 속한다. 이 때 ‘성스러움’이란 물론 그리스도교의 종교전통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것을 모든 종교에서의 기본적인 범주로 설정하고 ‘성스러움’을 기반으로 하여 누멘적 감각(*sensus numinis*)을 통해 심리학적으로 언어질 수 있는 종교적 지식의 인식론적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여타의 삶의 영역과 전적으로 다른 종교의 자율적 영역을 확고히 세우려 했던 것이다. 오토는 각 종교 전통에서의 종교 현상과 그 경험을 비교하며 종교경험을 단지 주관적인 것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연구방법을 자기 시대에 제시했다.<sup>4)</sup>

즉 일반적으로 오토의 『성스러움』은 종교의 본질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성스러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종교학적이며 신학적인 역작으로 간주된다. 오토는 그의 저작에서 다양한 종교적 감정의 표

---

3) 루돌프 오토 저, 길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 (서울: 분도출판사, 1991(재판)), p. 14 참조.

4) Jacques Waardenburg, *Class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Aims, Methods, and Theories of Research, Introduction and Anthology*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2017), p. 425.

출들의 예를 통해 언어로 개념화하거나 정확히 포착될 수 없는 ‘성스러움’의 주변을 배회하며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오토는 종교적 경험에 대한 그 심리적 개념으로서 성스러움, 즉 누미노제를 제시하였고, 이는 다양한 종교들을 아울러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인간 고유의 경험이자 인간의 고유한 종교적 경험으로서 널리 수용되었다. 오토가 ‘성스러움’의 개념을 제시한 이래로 ‘성스러움’의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종교개념은 공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해된다. 세속에 대비되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지배적인 것이다. 종교적인 것이란 속과 다른 성스러움의 영역에 속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종교는 진정 언제나 늘 성스러운 것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일까? 꼭 그렇지 않음은 이미 종교학계의 연구 성과를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종교’ 개념에 대한 이해는 역사 속에서 늘 변주되어 왔으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현재 우리의 종교에 대한 이해는 19세기 말 이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 경험의 ‘성스러움’에 대한 믿음과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이 개념을 글로벌하게 확산시킨 루돌프 오토의 종교이해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스러움’이라는 종교현상학적이며 종교심리학적 개념을 각인시킨 루돌프 오토의 생애 중 1917년 그의 역작(*opus magnum*) 탄생 이전까지에 대한 역사적 윤곽을 그려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특히 그의 신학적이고 종교학적인 사유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에 성스러움이라는 개념에 천착하게 된 그의 동기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sup>5)</sup>

5) 여기에서는 오토의 중요한 초기 저작 중 과학과 종교와 관련된 저술에 대해서는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 출판 이전의 초기 신학적, 종교학적 이력에 대해 간단히 살필 것이다(II). 그러나 여기에서는 1917년까지의 모든 이력을 살피지는 않는다. 본고는 역사적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제 2장에서는 일단 박사학위 논문 이전까지를 살피고, 이후의 전개에 따라 오토의 이력을 중간 중간 삽입하도록 한다. 둘째, 초기 오토의 핵심 관심사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특히 루터와 슐라이어마허에 대한 해석, 새로운 예수상에 대한 그의 관점,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둘러싼 종교경험의 고유성을 오토가 어떻게 접근하였는지를 조명할 것이다(III). 마지막으로 오토의 역작인 『성스러움』의 의미에 대하여 몇 가지 성찰을 제시하고자 한다(IV).

## II. 초기 루돌프 오토의 삶과 사상(1869-1898)

오토는 1869년 독일 니더작센 지역의 파이네(Peine)에서 맥아 제조업자의 12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1880년 힐데스하임(Hildesheim)으로 이사 갔으며 그곳에서 1888년 그는 아비투어(대학교 입학자격시험)을 치렀다. 북부에서 자란 그는 남부 바이에른 지역의 에어랑엔(Erlangen) 대학 신학부에 입학하였다. 에어랑엔 대학은 보수적 입장의 루터주의 경향이 강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학업을 시작하고자 한 것은 오토 자신이 원한 것이었는데, 그는 본래 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해 신학적으로 무장하고자 에어랑엔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1889년 가을, 3

---

루지 않고 있다. 이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둔다: Rudolf Otto, *Naturalistische und religiöse Weltansicht* (Tübingen; J. C. B. Mohr, 1909). Rudolf Otto, *Goethe und Darwin: Darwinismus und Relig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9).

개월 정도 영국에 머문 후, 1891년 여름학기부터 그는 괴팅엔(Göttingen) 신학부에서 학업을 지속하게 된다. 신학적 노선의 전향이라기보다는 동학(同學)이 필요했던 개인적인 이유로 그를 따라 괴팅엔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sup>

오토는 1889년부터 자유주의 신학적 경향의 괴팅엔 신학부에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나가기 시작한다. 오토의 자전적 서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우선 구약학자로서 조직신학 또한 가르쳤던 헤르만 슐츠(Hermann Schultz, 1836-1903)를 들 수 있다. “기독교 변증학 수업,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따라잡을 수 있었고 큰 기쁨을 느꼈다. 철학적 합리주의 대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활동적이고 확신할만한 재현을 발견했다.”<sup>7)</sup>

오토는 또한 구약학 교수로 활동한 루돌프 스멘트(Rudolf Smend, 1851-1913)를 통해 성서 역사비평 훈련을 접한다. 스멘트는 율리우스 웰하우젠(Julius Wellhausen, 1814-1918)의 제자로서, 구약성서를 종교사적으로 연구한 『구약 종교사 개론』(*Lehrbuch der alttestamentlichen Religionsgeschichte*, 1893)의 저자이기도 하다. 종교현상학의 대표적 인물들이 당대의 종교사적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오토 또한 그러했으며 종교사학파에 오토의 이름이 반드시 거론되는 이유도 괴팅엔의 종교사적 연구의 흐름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통해 그는 그 패러다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조한 종교사적 관찰’

6) Carl Heinz Ratschow, “Rudolf Otto”, *Gerhard Müller. TRE XXV* (Ber) p. 559. Rudolf Otto, *Autobiographical and Social Essays*, Gregory D. Alles (trans. & ed.),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6), pp. 52-53. Gregory D. Alles, “Rudolf Otto (1869-1937)”, Axel Michael, *Klassiker der Religionswissenschaft: Von Friedrich Schleiermacher bis Mircea Eliade*, (München: C. H. Beck, 2004), p. 200.

7) Rudolf Otto, *Autobiographical and Social Essays*, Gregory D. Alles (trans.), p. 55.

을 넘어서 다양한 종교에서 드러나는 종교적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8)</sup> 이 노력의 배후에는 여행과 순회강연을 통해 자신의 종교 지평을 확장시키는 개인적이고 협력적인 경험 뿐 아니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당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

1891년 8월에서 10월 사이, 오토는 하인리히 학만(Heinrich Hackmann, 1864-1935)과 칼 팀메(Karl Thimme, 1869-1949)와 더불어 그리스 및 그리스에 속한 코르푸 섬을 여행하였으나 그다지 큰 감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9)</sup> 그러나 1895년 이집트와 예루살렘, 레바논의 베이루트와 그리스의 렘노스 섬, 마케도니아의 아토스 산 등 동방지역을 여행하게 되는데 특히 카이로에서 수피 승려(Dervish)의 춤, 콥트교회의 예배 등을 접하며 타종교와 관련하여 관찰자의 입장에서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여행 이후 오토는 괴팅엔 신학부의 강사이자 신학생 기숙사(Theologisches Stift Göttingen) 사감으로 일하면서 1898년, 『루터의 성령관』(*Die Anschauung vom Heiligen Geiste bei Luther*)<sup>10)</sup>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다. 그의 사상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오토가 주목한 것은 무엇일까?

8) Rudolf Otto, *Reich Gottes und Menschensohn: Ein religionsgeschichtlicher Versuch*,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34), p. 325: Ratschow, p. 561.

9) Rudolf Otto, *Autobiographical and Social Essays*, Gregory D. Alle (trans. & ed.), pp. 100-101, 학만은 종교사학파의 일원이며 훗날 중국학자로서 활동하였다. 앞의 책, p. 100.

10) Rudolf Otto, *Anschauung vom heiligen Geiste bei Luther: eine historisch-dogmatische Untersuch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8).

### Ⅲ. 초기 오토의 종교적 관심사

#### 1. '루터의 성령관'

폴 틸리히는 1925년,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 경향을 대변하는 신문에 루돌프 오토에 관한 짧은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틸리히를 통해 우리는 『성스러움』 이전의 오토 저작의 의미와 당대의 맥락을 엿볼 수 있다.<sup>11)</sup> 우선 오토의 저술과 생애 속에서 '신비주의'(Mystik)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저술에서 오토는 개신교의 기원에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루터 및 개신교에 대한 반신비주의적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오토는 지적한다.<sup>12)</sup>

이미 표지 다음의 첫 제목과 저자가 실린 첫 속지에서부터 오토는 루터가 “예수는 성령으로부터 바로 전파”되며, “말씀과 신앙에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비가 있다”는 언급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바로 ‘성령’ 및 ‘신비’에 놓여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성령’이다. 논문 가장 첫 부분에서 오토는 루터가 ‘spiritus sanctu’(성령)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 성령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표현세계와 표상세계 모두가 그룹화 되어 있기에 이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

11) Paul Tillich, “Der Religionsphilosoph Rudolf Otto”, *Vossische Zeitung*, No. 308. 1925; 이 기문은 틸리히 전집에 수록되어있다. Paul Tillich, “Der Religionsphilosoph Rudolf Otto”, *Begegnungen: Paul Tillich über sich selbst und andere; Gesammelte Werke Bd. XII*, (Stuttgart und Frankfurt am Main: Evangelisches Verlangswerk, 1971), pp. 179-183.

12) 위의 책, pp. 184-186.



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두 번째 관심사는 루터 자신의 종교적 경험과 관련하여, 당대의 전통적이고 교회적 의미를 염두에 두며 루터의 고유한 표현을 성령이라는 개념 속에서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sup>13)</sup>

오토는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사효론(事效論, *ex opere operato*)과 전통적인 성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나치게 과도한 신비주의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의례와 성사를 새롭게 해석해내고 있다고 보았다. 루터가 생각하는 종교는 그가 적대하는 세력 - 즉 가톨릭과 재세례파 - 과 마찬가지로 느낌 및 초감각적인 것을 신뢰하는 ‘신앙’ 종교였다. 여기에서 초감각적인 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루터에게 있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이자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뜻하는 것이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활동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 때 자신의 마음, 즉 분노와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다. 신이 그 고유한 본질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루터는 ‘말씀’이라고 보았다.

이 때 그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 자연으로서의 인간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신은 인격으로부터 인격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는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끼친다. 성사적인 마법 대신 오직 말씀이 인간에게 들어선다.<sup>14)</sup> 이로써 루터에게 있어서 성사란 전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그것은 놀라운 마법, 기적으로서 라기 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확증으로서의 확실한 형태였다. 보이는 말씀인 것이다. 따라서 성사, 즉 성례전은 루터에게 있어 폐기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갱신된다.

『성스러움』에서 오토는 한 챕터를 루터에 대한 논의에 할애하고 있으며 이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sup>15)</sup> 오토는 초기 그리스

13) Otto (1898), p. 1.

14) 위의 책, p. 52.

15)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 p. 176 참조.

도교의 교부들에게서 잠재해있던 비합리적인 요소들의 온전한 발현이 바로 루터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문제는 루터에게 있어 본래적이고 그의 경건성의 기반을 이루는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후대에 와서 완전히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분명 『성스러움』에서라기보다는 박사학위 논문을 착수하게 된 이유로서 오토는 비합리적인 것이 왜 간과되고 무시되는지, 즉 합리적인 세계관을 따르는 비신학계는 이해할만하다고 해도 심지어는 신학계, 특히 정통으로 스스로를 자부하는 루터교에서도 비합리적인 것을 철저히 무시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토가 『성스러움』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있는 박사논문의 부분에 묘사되고 있는 루터에게서 발견되는 비합리적인 요소란 무엇인가? 오토는 특히 루터의 『노예의지론』(*De servo arbitrio*)에서 루터가 경험하는 누멘적 감정으로서의 두려움(*Tremendum*: 전율)이라는 감정에 주목했다. 그는 루터가 종교적 경험 가운데 성령의 임재 하에 머무는 느낌, 그 종교적 감정을 중요시했음을 지적한다. 루터는 그 종교적 감정을 비가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내적 감각으로서, 일반적이거나 일상의 평범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선물’(ein göttliches Geschenk)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sup>16)</sup>

오토도 루터에게 있어서 ‘말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종교적 감정’ 또한 분명히 그 경건한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계시되지만, 십자가나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내면에서 진정으로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 십자가와 율법은 “구원에 대한 열망”(Heilsbegierde)를 자극하고,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깨닫도록 신자들을 이끌어줄 수는

16) Otto (1898), p. 84.

있을지라도, 도우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 자체로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 수 없다. 율법과 십자가는 신자들의 신앙을 자극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열망 곧, 종교적인 감정, 종교적 욕구의 발현까지 나아가게 해야 한다.<sup>17)</sup> 루터에게 해당하는, 비합리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이러한 고유한 종교적 체험과 감정에 대한 논의는 『성스러움』에서 더욱 예각화되어 더 과감하게 신비주의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 나아간다. 예를 들어 오토는 루터파 신앙에서 출발해 독특한 신비주의적 사상을 발전시킨 야콥 뵘메(Jakob Böhme, 1575-1624)의 “누멘적인 것에 대한 살아있는 감정”이야말로 “루터교파에서 오히려 잃어버렸던 루터의 자산을 그가 보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찬양한다.<sup>18)</sup>

오토가 신학공부를 시작하던 에어랑엔 대학 신학부는 루터교의 교파적 정체성이 매우 강한 곳이었다. 정통으로서의 루터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루터 신학에 대한 도그마적인 신학 해석에 대해 그가 고민하고 성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대의 루터교파가 정통성에 집착하면서 루터의 생동하는 신비주의적 신앙적 측면이 철저히 간과되는 문제점을 오토는 인식하고 그 경직성을 넘어서기 위한 작업을 수행했다. 『성스러움』은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신비주의적 전통 그 자체에 대해 재평가를 하고 있다. 오토는 루터파는 물론 더 나아가 개신교에 개혁이 필요함을 이미 초기부터 자신의 주요한 신학적 과제로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17) 위의 책, p. 86.

18)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 p. 188.

## 2. 새로운 예수상에 대한 시대적 관심과 오토의 응답

오토는 괴팅엔 대학의 강사로 활동하며 1901년 예수에 관한 소책자인 『역사비평적 관점에 따른 예수의 생애와 활동』(*Leben und Wirken Jesu nach historisch-kritischer Auffassung*)을 출간한다. 이는 그의 강연 내용을 책으로 엮어낸 산물이었다. 오토는 이러한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노버에서 교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을 갖는 동료들의 모임에서 그들은 역사비평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들을 알고 싶어 했다.”<sup>19)</sup> 오토는 서문에서 당대인들이 대면하는 두 가지의 예수상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예수상은 교회 전통을 기반으로 한 예수상이다. 두 번째는 당대의 역사비평적 성서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의 생애와 활동을 기반으로 한 예수상이다. 당시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현실은 이러한 두 가지 예수상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으며, 오토의 지인 그룹은 이에 대한 강의를 그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전통 교회에 대해 회의하며 새로운 그리스도교의 개혁을 원하는 당대 그리스도교인들의 요구와 바람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신도층의 혼란은 이미 신약학자 다비드 프리드리히 슈트라우스(David Friedrich Strauß, 1808-1874)가 복음서에 나오는 신성의 부분을 모두 합리적이고 유물론적으로 설명하여 비신화화 했던 논란의 책, 『예수의 생애』(*Das Leben Jesu*)(1835-36) 등장 이래로 계속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오토는 교회적 갱신을 위해 역사비평적 방법론

19) Rudolf Otto, *Leben und Wirken Jesu: Nach historisch-kritischer Auffass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5), p. 5: 본 소논문에서 필자는 제 1판을 저본으로 하여 인쇄된 1905년, 제 4판을 사용한다.

20) David Friedrich Strauß, *Das Leben Jesu, kritisch bearbeitet. 2 Bde.* (Tübingen: Osiander,

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예수상을 일반 신도들을 위해 제시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 책의 의의를 우리는 또한 미국에서 이루어진 번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08년, 독일 출신 미국의 출판인이자 철학자였던 파울 카루스(Paul Carus, 1852-1919)가 운영하는 시카고에 위치한 오픈 코트 출판사(Open court publishing)에서 이 책이 영역본으로도 출간되었다.<sup>21)</sup> 위트비(H. J. Whitby)의 영역본 *The Life and Ministry of Jesu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and Critical Method*의 서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역자가 역사비평적 방법을 통한 새로운 ‘인식’(Erkenntnisse)을, 요즘의 일반적 번역의 방식인 ‘cognition’이 아닌 ‘sciences’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세기의 ‘과학’(science) 개념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나를 우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대에 막강한 권위와 영향력을 발휘하던 개념이 과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번역자의 의도를 추측 가능하다. 일단 오토의 독일어본 서문 첫 문장이 매우 간략하게 시작되는 반면<sup>22)</sup> 영역본의 문장은 훨씬 세심하고 자세한 문장으로 풀어져 시작된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의 두 이미지를 마주한다. 하나는 교회적 이미지로서 철저히 조사되지 않은 문제의 산물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비판적인 이미지는, 비판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의 시련을 통과한 문제의 산물이다.”<sup>23)</sup> 이는 역자가 역사비평적 성서해석을 과학적

---

1836).

- 21) 파울 카루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태연, “파울 카루스의 ‘과학종교’ 연구: 19 세기에 나타난 종교의 과학화”, 『신학연구』 67 (2015), pp. 413-442.
- 22)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다른 그림 하나는 교회적 전통이 묘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판적 역사연구가 묘사하는 것이다”, Otto (1905), p. 5.
- 23) Rudolf Otto; H. J. Whitby (trans.), *The Life and Ministry of Jesu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and Critical Method*, (Chicago: The Open Court Publishing Co., 1908), Preface 참조.

접근방법으로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오픈 코트 출판사는 철학과 종교, 그리고 특히 종교를 과학화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운영된 곳이다. 오토의 책은 출판사의 “오늘날의 기독교 총서”(Christianity of Today Series)의 네 번째 책으로 출판되었다. 제 1권은 출판사 사장인 파울 카루스 자신의 책인 『신: 인간의 최고의 이상으로서의 그 본성과 과학의 입장에서 본 문제의 해법』으로서 오토의 영문 번역본과 동일한 해에 출판되었다.<sup>24)</sup> 종교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즉 종교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대한 출판사와 역자의 관심 속에서 오토가 제시하는 역사비평적 예수상이 미국에서 수용된 측면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토의 이 작은 소책자는 예수의 생애와 활동을 알기 위해 필요한 사료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한다. 저술연대 순으로 신약성서를 고찰하여, 가장 이른 시기에 저술된 바울 진정서신서부터 출발하여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성서에 대한 역사비평적인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토가 제시하는 예수상에는 칸트적 의미에서의 도덕설교가의 면모가 드러난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에서 고고학적, 종교사회학적, 종교사적 발전에 힘입어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현대의 시각에서, 오토의 역사적 예수상은 매우 평이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이 강연집 출판으로 인해 베를린 종교국은 오토를 자유주의적 경향의 신학자로 낙인찍고, 브레슬라우(Breslau)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당시의 경향을 짐작해보자면 그가 제시하는 예수상은 당대의 상황에서 매우 급진적이었음을 알 수

---

24) Paul Carus, *God: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Man's Highest Ideal, and a Solution of the Problem from the Standpoint of Science* (Chicago: The Open Court Publishing Co., 1908).

있다. 특히 과학과 종교를 대립관계가 아닌 화합, 더 나아가 융합까지도 생각했던 시카고의 오픈코트 출판사에서 이 책을 적극적으로 번역하여 출판한 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예수에 대한 이해 문제는 오토가 자신의 생 마지막까지 끌고나간 주제이다. 이 강연집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역작이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아들』(*Reich Gottes und Menschensohn*)이라는 점은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저서는 상대적으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저서였다.<sup>25)</sup>

### 3. 인간의 감정: 종교경험의 고유성 확립을 위한 장소

앞서 논의한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소책자가 나오기 2년 전, 그리고 대표작인 『성스러움』이 세상에 나오기 18년 전인 1899년, 오토는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의 『종교론』(1799년: 초판) 출간 100주년을 기념하며 『종교론』을 새롭게 발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서 오토는 쉐라이어마허 『종교론』 초판을 현대 신학의 정전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1806년, 1821년, 1831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을 두며 쉐라이어마허는 자신의 책을 수정해 나아갔지만, 오토는 오히려 쉐라이어마허의 초기의 “미숙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것이다.<sup>26)</sup> 그는 종교의 그 고유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변론적인 교양서의 성격을 띠는 『종

25) Rudolf Otto, *Reich Gottes und Menschensohn: Ein religionsgeschichtlicher Versuch*, (München: C. H. Beckische Verlagsbuchhandlung, 1934).

26) 루돌프 오토 저, 김승혜 역, “쉐라이어마허의 『종교론』 소고”, 김승혜 편, 『종교학의 이해: 종교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서울: 분도출판사, 1989), pp. 85-86. “... 쉐라이어마허는 『종교론』의 본래 형태를 놀라울 정도로 재편집하고 수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신선하고 젊고 직접적 효과를 분출하던 것과 같은 최초의 어조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앞의 책, p. 92.

교론』을, 종교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종교철학적 논문”으로 간주한다.<sup>27)</sup> 그리고 오토는 슐라이어마허가 『신앙론』(Glaubenslehre)에서 언급한 “절대 의존 감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이를 “피조물적 감정”으로 확대 개정하였다. 이로써 『종교론』에서의 “감정과 직관”, 그리고 『신앙론』에서의 “절대 의존감정”이 슐라이어마허 종교이해의 확고한 핵심으로 자리를 잡는다.<sup>28)</sup>

1902년은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경험의 다양성』(*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가 출간된 해이다. 오토는 그리스도교를 넘어서는 인간 고유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확신을 제임스의 심리학적 작업과 로버트 매릿(Robert Ranulph Marett, 1866-1943)의 사회인류학적 작업을 통해 다져갔다. 매릿은 인류학자인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 1832-1917)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 1854-1941)와는 다른 관점에서 원시종교를 평가했다. 애니미즘(animism, 정령신앙) 대신, 그는 ‘비인격적 전애니미즘’(impersonal preanimism)(혹은 애니머티즘[animatism])을 종교사의 최초의 단계로 설정했다. 즉 동물이나, 돌, 나무 등 자연의 대상을 통해 불러일으켜지는 놀라움, 경외심, 그리고 비인격적인 힘에 대한 경험이 애니미즘 이전 단계라는 것이다.

매릿은 그의 “pre-Animistic Religion”에서 타일러의 진화론적 입장과 종교의 지성적 측면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뚜렷이 했다.<sup>29)</sup> 타일러는 종교사를 진화론적 발전단계로 설명했다. 가장

27) 앞의 책, 86.

28) 김태연, “슐라이어마허 『종교론』의 수용사적 의미”, 『신학연구』 74 (2019), pp. 86-87.

29) Udo Tworuschka,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Religionswissenschaf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15), p. 65; Robert Ranulph Marret, *The Threshold of Religion* (London: Methuen & Co., 1909), p. ix.



낮은 단계는 애니미즘으로써, 인류의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인 부족들에게 발견되는 것이다. 완전히 발전에 이른 애니미즘은 신들(deities)과 하위정령들을 조정하는 신앙을 포괄한다.<sup>30)</sup> 그러나 마렛에게 있어 원시 종교는 인류 문명의 저열한 단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종교의 감정적이며 실용적이고 의례적인 차원을 드러내주는 것이다.<sup>31)</sup> 여기에서, 우리는 마렛이 당시의 진화론적인 종교이해, 즉 당대에 서구 인류 학자들이 부족사회를 ‘야만’의 상태로 바라보며 인류 문명발전의 초기 형태를 그에 투영해버리는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의 한계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종교의 심리적인 측면에 주목한 마렛은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적 행동의 지속적인 원천이란 바로 인간의 감정”이라고 보았다.<sup>32)</sup>

이러한 지역과 문화의 경계를 초월하여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종교경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오토는 『칸트와 프리스의 종교철학과 신학에 대한 그 적용』을 1909년에 출간하였다.<sup>33)</sup> 이 책은 그 제목대로 신학도들을 위한 교의론 입문서로서 신학을 위한 철학적 예비과정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그러나 구치(Gooch)가 지적하듯이, 오토 사상의 발전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특히 『성스러움』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이다.<sup>34)</sup>

프리스는 “직관”(Ahndung)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식과 신앙의 갈등을

30) Tworuschika, p. 64.

31) 앞의 책, p. 65.

32) Marret, *The Threshold of Religion*, p. x.

33) Rudolf Otto, *Kantisch-Fries'sche Religionsphilosophie und ihre Anwendung auf die Theologie: Zur Einleitung in die Glaubenslehre für Studenten der Theologie* (Tübingen: J. C. B. Mohr, 1909).

34) Todd A. Gooch, *The Numinous and Modernity: An Interpretation of Rudolf Otto's Philosophy of Relig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0). p. 54.

극복하고자 한 철학자이다. 프리즈는 직관을 통해 신성한 힘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sup>35)</sup> 인간에게서 이러한 정신적 능력의 독자성을 확보하기에 감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유로운 판단능력에 대해 의심하기보다는 그것을 신뢰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칸트의 도덕종교가 아닌, 인간의 종교성과 종교 그 자체로서의 의의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제를 오토는 신학과 종교학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이자 근거로 삼았다. 프리즈에 대한 20세기 초의 수용사적 맥락은 또 다른 주제이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오토가 프리즈의 지식 대 신앙이라는 양극단의 입장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주목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이를 염두에 두되 여기에서는 오토가 언급하는 철학자, 신학자들에 대한 이해가 아닌, 그가 이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종교철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슐라이어마허가 자기 시대의 형이상학과 도덕종교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종교의 본질을 직관과 우주에 대한 감정으로 제시했다면 오토의 맥락은 그와는 다르지만 일단 슐라이어마허의 기본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심리학적인 측면과 또 종교사적 측면에서 인간의 다양한 경험들 중 특별히 종교적으로 구분되는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오토에 따르면 종교는 우리의 “정신적 삶에서 내적으로 가장 깊은 곳의 모든 일”이며 “어둡고, 반 의식적이며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은 곳에서 길을 잃고 느낌에 따라 사는 것”이기에, 오직 “느낌”으로만 파악 가능하다. 종교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sup>36)</sup> 그렇다면 종교가 오직 감정으로서만 파

35) 요아킴 바흐 저, 김승혜 역, “루돌프 오토와 「성스러움의 의미」”, 김승혜 편, 『종교학의 이해: 종교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서울: 분도출판사, 1989), p. 100.

36) Otto (1909), p. v.

악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학문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오토는 그렇다고 해서 종교의 본질에 대해 개념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거나 과학적으로 그에 대해 물음이 제기되어야하고 또 대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즉, 술라이어마허가 “최종적으로 제공한 출발점”으로서 종교자체에서 “종교적인 것의 내적 성찰”, “종교적 의식의 자기관찰”을 시도함으로써 종교의 본질에 대해 접근 가능하다. 종교적 경험의 고유한 양식과 종교와 관련한 경험적 개념을 얻는 시도가 바로 종교심리학적 작업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비교 종교사적 작업이다. 이 종교사적 작업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삶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그 발전의 단계와 다양성, 법칙 등을 민속학과 민족심리학(Völkerpsychologie), 문화사의 접목을 통해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역사적인 귀납을 통해 종교에 대한 통찰을 해 나간다. 따라서 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종교심리학과 종교사의 방식은 상호 개입을 해야 하며, 이러한 “이중 작업”(Doppelarbeit)을 일반적으로 “종교철학”이라고 명명한다.

오토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교파는 물론, 신학이 자기 자리를 상대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방법론이자 타종교로까지 확장하여 종교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종교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칸트 이래로 이성비판이라고 불리는 것의 작업은, 종교와 종교적 확신, 그 경험이 이성적 정신에서 어떻게 출현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능력과 소질에서 종교가 등장하고 이를 통해 종교의 유효성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성적 정신의 인식, 특히 자연 및 자연과학의 영역에서의 인식능력에 한정될 뿐이다. 종교철학은 인간의 다른 무엇, 더 고귀한 인식, 소위 “신앙적 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규명해야만 한다.<sup>37)</sup>

일반 철학적 작업으로서 칸트의 순수이성으로부터 종교의 본질에 대한 합리적 요소를 사유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장 깊고 내적이며 특수한 종교적 감정이란 비합리적 요소를 사유해 내갈 수 있는 것은 종교철학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철학의 과제는 종교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며 종교심리학과 종교사의 방법론은 종교철학의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sup>38)</sup>

오토는 이 책에서 전통적 신학이 과학과 철학의 도전에 직면하여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도전에 대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출구를 신학도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다. 전통신학은 전통적인 구(舊)신학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아 신, 인간, 세계,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조명하는 형이상학과 유사했다. 이러한 구신학으로부터 등장하는 종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삼는다. 반면 현대의 신학은 이러한 구신학과는 전혀 다른 맥락 속에서 다른 과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오토가 신학에 건네는 돌파구는 바로 정신(Geist)과 관련하여 과학(Wissenschaft)과 철학과 관련을 맺는 종교학, 그리스도교 신학(christliche Theologie), 그리스도교 종교학(christliche Religionswissenschaft)이다.<sup>39)</sup> 종교사의 발전과 과학의 도전 속에서, 그리고 당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부터 등을 돌리는 상황 속에서 오토는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 신학이 새로운 자기이해 속에서 자신을 찾아 나아가고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결국 “종교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부각된다. 종교학이란 각 종교에 대한 서술 혹은 묘사에 불과한 것인가? 오

---

37) 위의 책, p. vi.

38) 앞의 책.

39) Otto (1909), p. 192.

토는 이 때 법학의 예를 들며 종교학이란 무엇인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법학(Rechtswissenschaft)은 현존하는 법에 대한 서술과 묘사가 아니라, 법과 그 해당 법의 타당성을 찾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다. 이 때 법제사(Rechtsgeschichte)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와 동일하게 종교학은 종교의 유효성과 현행 종교를 탐색하는 데, 초자연적인 기준으로 후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도덕과 법에 관련된 학문 및 모든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문은 인간 정신의 합리적·영적 본질에 대해 검토하고 이성과 인류학에 대한 비판에 착수해야하며 인간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활동, 경험, 표현 등 일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과학, 윤리, 미학, 종교 및 종교 경험의 일반적 개념을 매우 포괄적이며 유기적으로 획득해내야 한다. 이는 철학적인 일이며, 종교학은 이러한 철학적인 사전작업 없이는 결코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학문적 작업을 해낼 수 없을 것이다.<sup>40)</sup>

오토는 신학과 종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종교학은 ‘종교적 삶’, ‘종교적 경험’에서 출발해야할 것을 역설한다. 의사들이 해부학과 생리학을 중시 여기는 것처럼, 실용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의 본질과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일반 비교 해부학과 생리학”을 통해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처럼, 신학자들 또한 자신의 종교를 비교종교사적 맥락에서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종교사가들이 “신화개론”이나 “골동품”과 같은 것들을 통해 원시종교에 대한 것을 탐구하는 것을 멈추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완전함은 불완전함으로, 발달된 것은 미발달된 것으로부터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곧 반대방향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우리는 부처가 무엇을

---

40) 앞의 책, p. 193.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아마도 다시 한 번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템과 터부가 "원시인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아마도 결코 아닐 것이다." 진정한 종교학의 출발점이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저 먼 원시시대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경험 그 자체"일 뿐이다.<sup>41)</sup> 오토는 인간 삶의 종교적 경험과 감정의 그 고유하고도 선형적인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학이 철학과 협력하여 종교철학 및 그리스도교 종교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장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후 오토는 1910-11년,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인도 및 중국과 일본을 여행하는 기회를 얻는다. 『성스러움』(1917)이라는 저작이 출현하게 된 매우 직접적인 계기로서 늘 인용되는 것은 1911년 5월, 모로코의 항구도시, 에사우리아(Essaouira)의 유대인 거주지에 위치한 한 회당에서 오토가 체험한 안식일 의례에 대한 것이다. 오토는 자신의 체험담을 당대의 저명한 개신교 잡지인 「그리스도교 세계」(Die Christliche Welt)라는 잡지에 실었다.<sup>42)</sup> 이사야서 6장 3절을 기반으로 한 히브리어 의례문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하늘과 땅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하여라"(Kadosh Kadosh Kadosh Elohim Adonai Zebaoth Male'u hashanayim wahaarets kebodo) - 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는다. 히브리어 카도쉬(kadosh)로부터 성 베드로 성당에서 추기경의 라틴어 쌍투스(sanctus), 크레믈린 성당에서의 슬라브어 스비앗(swiat), 예루살렘 성당에서 대주교의 헬라어, '하기오스'(hagios)를 들은 경험을 떠올린다.<sup>43)</sup> 오토는 '거룩함', '성스러움'을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통해 확

41) 앞의 책, p. 197.

42) 55년간 발행된 개신교 잡지로서, 자유주의 좌파 정치적 노선에서 활동한 신학자이자 마르부르크 대학 교수였던 마틴 라데(Martin Rade, 1857-1940)가 1931년까지 이를 운영했다.

신한 것이다. 신학과 철학, 그리고 과학에 대한 학문적인 성찰의 여정은 그 자신의 종교적 체험, 특히 의례를 통한 ‘성스러움’의 경험을 통해 그 분수령을 맞이한다. 1917년 오토는 마르부르크 대학 조직신학 교수로 부임하게 되고 그의 『성스러움』이 출판된다.

#### IV. 나가며: 오토의 『성스러움』과 그 역사적 자리

본 연구는 오토의 초기 저술들을 통해 그가 어떠한 문제제기와 역사적, 신학적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였다. 특히 그가 종교의 어떠한 면에 초기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고 이러한 사상적인 관심이 후기 작업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다루었다. 그의 초기 고민, 당대의 신학과 철학의 합리주의적 경향 및 종교사학과 종교심리학, 더 나아가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자연과학에 대한 학문적 고민과 씨름에 대한 조명을 통해 우리는 오토의 이 역작에 대해 더 깊은 통찰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성스러움』이 출판된 때는 제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세계관의 기반이 되던 도덕, 윤리, 과학, 철학, 그리스도교에 대한 회의와 절망이 점철하던 시대였다.<sup>44)</sup> 이러한 때에, 그리고 특히 루

43) Rudolf Otto, *Autobiographical and Social Essays*, Gregory D. Alles (trans. & ed.), pp. 80-91, 최정화,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 이 탄생되기 전후의 맥락: 누미노제 개념의 기원을 찾아서”, 『종교와 문화』 22 (2012), pp. 37-58, Harry Oldmeadow, *Journeys East: 20th Century Western Encounters with Eastern Religious Traditions* (Bloomington: World Wisdom, Inc., 2004), pp. 46-47.

44) 라이프치히 목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실천신학자로서 활동한 나우만(Gottfried Naumann)에게 쓴 편지에서 오토는 자신의 책의 집필 의도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는 ‘전쟁서적’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글에 대한

터의 종교개혁 4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오토가 자신의 책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이러한 시대적 위기와 그리스도교 및 종교의 무용성에 대한 회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었다. 그가 생각한 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 당대의 신학계가 고수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었다. 인간의 본성과 신적인 대상을 관통하는 비합리적이고 신비적이며 역동적인 종교적 경험과 요소를 『성스러움』을 통하여 조명함으로써 이러한 전환을 시도했다. 이는 개신교가 정통을 고수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개방된 자세로 반응하여 그 자신을 개혁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토 자신의 저술에서 그리스도교의 특수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견지한 것과 1934년, 그가 말년에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책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아들: 종교사적 시도』에 나타난 고민을 통해 그가 신학과 종교학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토를 종교학의 자리에서 조명할지 혹은 조직신학적으로 조명할지, 아니면 그 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지는 궁극적으로 연구자의 해석과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토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어떠한 삶의 자리와 역사적 전개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독일도 유럽도 서구도 아닌, 바로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의 종교학과 신학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오토가 자신의 시대적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산물이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변주되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학문적 논의일 것이다. 바로 본

---

생각은 현재의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Martin Kraatz, “Zur Person Rudolf Ottos”, Jörg Lauster, Peter Schüz, Roderich Barth, Christian Danz, *Rudolf Otto: Theologie-Religionsphilosophie- Religionsgeschichte*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14), pp. 14-15.



연구는 이를 위한 작은 디딤돌로서 오토의 초기 대표적 저작들과 그 의미를 신화적이고 종교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 참고문헌

1차문헌

- Marret, Robert Ranulph. *The Threshold of Religion*. London: Methuen & Co. 1909.
- Otto, Rudolf. *Anschauung vom heiligen Geiste bei Luther: eine historisch-dogmatische Untersuch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8.
- Otto, Rudolf. *Leben und Wirken Jesu: Nach historisch-kritischer Auffass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5.
- Otto, Rudolf. *Kantisch-Fries'sche Religionsphilosophie und ihre Anwendung auf die Theologie: Zur Einleitung in die Glaubenslehre für Studenten der Theologie*. Tübingen: J. C. B. Mohr, 1909.
- Otto, Rudolf. *Reich Gottes und Menschensohn: Ein religionsgeschichtlicher Versuch*. München: C. H. Beckische Verlagsbuchhandlung, 1934.

(한국어 번역본)

- 야스퍼스, 칼; 오토, 루돌프; 브룬너, 에밀 저. 윤성범 역. 『哲學入門, 宗教入門, 宗教哲學』. 서울: 을유문화사, 1963.
- 오토, 루돌프 저. 김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 서울: 분도출판사, 1991(재판).

(영어 번역본)

- Otto, Rudolf. H. J. Whitby (trans.). *The Life and Ministry of Jesu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and Critical Method*. Chicago: The Open Court Publishing Co. 1908.
- Otto, Rudolf. John W. Harvey (trans.). *The Idea of the Holy: An Inquiry Into the Non-rational Factor in the Idea of the Divine and Its Relation to the Rational*. London: H.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3.
- Otto, Rudolf. *Autobiographical and Social Essays*, Gregory D. Alles (trans. & ed.).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6.

## 2차문헌

- Waardenburg, Jacques. *Class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Aims, Methods, and Theories of Research, Introduction and Anthology*.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2017.
- Lauster, Jörg; Schüz Peter; Barth, Roderich; Danz, Christian (ed.). *Rudolf Otto: Theologie-Religionsphilosophie-Religionsgeschichte*.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14.
- Ratschow, Carl Heinz. “Rudolf Otto”. Gerhard Müller.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XXV*. (Ber) pp. 559-562.
- Gregory D. Alles. “Rudolf Otto (1869-1937)”. Axel Michael. *Klassiker der Religionswissenschaft: Von Friedrich Schleiermacher bis Mircea Eliade*. München: C. H. Beck, 2004.
- Tillich, Paul. “Der Religionsphilosoph Rudolf Otto”. *Begegnungen: Paul Tillich über sich selbst und andere; Gesammelte Werke Bd. XII*. Stuttgart und Frankfurt am Main: Evangelisches Verlagswerk, 1971.
- Gooch, Todd A. *The Numinous and Modernity: An Interpretation of Rudolf Otto's Philosophy of Relig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0.
- Tworuschka, Udo.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Religionswissenschaf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15.
- 김태연. “파울 카루스의 ‘과학종교’ 연구: 19세기에 나타난 종교의 과학화”. 「신학연구」 67 (2015), pp. 413-442.
- 김태연. “슐라이어마허 『종교론』의 수용사적 의미”. 「신학연구」 74 (2019), pp. 65-94.
- 최정화.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 이 탄생되기 전후의 맥락: 누미노제 개념의 기원을 찾아서”. 「종교와 문화」 22 (2012), pp. 37-58

〈Abstract〉

Rudolf Otto's Early Thoughts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Formation  
of the Concept of "the Holy"

Kim, Taeyeon

This study aims to draw the historical outline of Rudolf Otto's life before the birth of his *opus magnum*, *Das Heilige*(1917), which impressed upon the people the religious concept of "the holy". In particular, I attempt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his theological and religious thoughts concerning his motivation for devotion to research about the concept of 'the holy'. Firstly, I will briefly review Otto's early theological and religious background before his publication of *Das Heilige*. Chapter 2 discusses his history before the doctoral dissertation briefly. In the following chapters, important historical events of Otto will be addressed as needed. Secondly, I pay attention to Otto's important issues with which he was intensively struggling in the early days of his theological development. It is discussed with Otto's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Luther and Schleiermacher, his reaction to the needs of lay people who need to know the new image of Jesus on the basis of historical criticism, and how he develops the originality of religious feeling.

Finally, I try to suggest the needs of reflection on future tasks of

religious studies and theology in the Korean context in relation to the significance of *Das Heilige*.

Key Words : Rudolf Otto, ‘Heilige’, religious feeling, religious experience, Philosophy of Religion, Study of Religion and Theology, Psychology of Religion

이 논문은 2019년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25일에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